

지방학교를 돌아보고

~가슴이 저려드는 자책감~

<본협회 교육부> 유 성 순

1965년도에 문교부에 있으면서 전국 29개 간호학교(4개학과 19개간호학교 6개간호고등기술학교)를 실패조 사하여 이것을 1965년 1월 13일에 문교부령 166호를 제정한 간호학교 규정에 참고재료로 하였던 일이 있다. 그 당시에 간호학교 대부분(특히 지방)이 시설 및 교원 배치가 불비되었는데 금년 2월부터 시작한 실패조사도 3년전보다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2월부터 3월까지 완전히 끝내려고 하였으나 대한간호협회 총회 관계상 불가불 4월트 밀려 아직 보지 못한 학교가 많다. 이 곳에 쓰고 싶은것은 많으나 특히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식에서 느낀 것을 몇자 적어 보려고 한다.

시대의 변화로 교육과정과 사회 진출 분야가 현저히 넓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졸업할 때에는 대부분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특히 일제 정치하에서 있는 사람만이 능존보건을 위하여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일을

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간호원이 꼭 있어야 할 곳이 너무도 많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요구되는 간호원수를 배꾸려고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민망한 간호고등기술학교가 금년에도 2개 도립병원 안에(강원도 원주, 경상북도 안동) 신설되었고 사립으로 경상북도 의성에서 개업 중인 의사가 신청중에 있다고 하니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간호원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미 운영하며 교육하고 있는 현재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조속한 시일내에 간호학교로 승격 증설되고 학생 증원하여 명실 공히 완전한 간호교육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도지방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졸업식장에 도착하니 식장은 울긋불긋한 조화로 장식되었고 교장 이하 내빈까지가 분

홍장미꽃을 달고 전직원은 노란색 장미꽃을 달고 있어 나도 그 덕에 왼쪽 가슴 전체를 덮을 만큼 큰 분홍 장미를 달았다. 마치 내빈과 직원의 졸업식인양 호화스럽게만 보였다.

그러나 재학생은 가랑머리를 드리우고 여고생의 자주색 교복에 「베레」보 모양의 교모를 쓰고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간혹 공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 보였다.

모두 자리잡은 후 졸업생들이 입장하였다.

동화세계를 꿈꾸는듯 어리고 아릿다운 소녀들에게는 맞지 않는 흰 복장에 검은 줄치 「켄」을 쓰고 들어오는 백의 전사들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꽃봉오리 보다는 더 어린 봄에 보슬비 먹음고 돌아나려는 꽃망울과도 같이 어리고 예뻐 모습이었고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로써 가슴이 뭉클하였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식순은 졸업장 수여와 우등생 및 교장의 상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상을 타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교장의 훈시로 부터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의 축사는 대독되었고 나는 대한간호협회 대표라는 영광을 받아 언변이 없는 말재주로 축사를 하였다.

여러 어른들의 축사와 훈시는 거의가 모두 국가정책의 일부인 국민보건을 위해 활동하여 무의면 해소에 이바지할 것을 부탁하면서 백

의 천사의 사명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말주변이 없는 내가 축사를 하려고 나가 섰으나 축사라기 보다 격려사라고나 할까 나의 마음은 심히 착잡하였다.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깨 알기에는 너무 어린 소녀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보건분야를 맡긴다는 자책감에서 가슴이 아프다기 보다 저러들었다.

재학생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는 더 한층 그들의 고충을 알게 하였다. 아름다운 동화세계에서 그리던 「나이팅젤」을 본받아 한국의 「나이팅젤」이 되어 보려고 고등기술학교에 발을 드러놓았으나 너무 힘들고 알기에는 자신들이 어렸다는 것이며 학교시설미비로, 실습과 교실난으로, 교생스러웠던 일등을 낭독하면서 울고 있을때 나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에 감동되거나 일시적인 감정 때문만이 아니고 나만이 알 수 있고 그들의 선배로써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 보낸다는 안타까움에서였다. 어른들은 너무나 그들을 혹사한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때의 그 무거웠던 마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간호원 수가 부족하다고 더욱 무의면 해소에 일원으로써 간호고등기술학교를 계속 존속시키려고 하나 만 18세 밖에 되지 않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각 종합병원에서

만 근무한다면 수간호원 밑에서 그런대로 위험치 않으나 무의면, 학교 보건소, 가족계획, 산업기관 등에서 일대일로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시설도 불충분한 병원에서 올바른 실습도 없이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였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기억력이 제일 좋은 연령으로써 입학하자 부터 국가시험을 위한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 합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분의 의사들이 말하기를 강의하 다가도 짜증이 난다고 한다. 이유인 즉 중학교 교육바탕에다 어려운 (대학 교과과정과 등등) 전문적인 강의를 하자니 잘 알아 듣지도 못할 뿐 더러 글씨 쓰는 법까지 가르쳐 가면서 강의하여야 겨우 알게 되고 너무 많은 질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들도 모르고 입학하였다가 모르고 졸업한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 듯하다.

간호보조원 훈련 때문에 오는 그들의 위치는 더욱 난처하게만 되었다. 간호보조원들은 사회경험이 있어 연령이 고등기술학교 출신보다 높다는 데서 R.N.인 이들이 과연 나이 많은 간호보조원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간호고등기술학교 교장은 아직 우리 간호원으로

써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교장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립병원 원장이 대리를 보고 교장은 남자들이며 서무직원도 몇 학교에서는 다른 고등학교 직원이 결직하고 우리 간호원들은 강사로써 일하고 있는게 대부분이다. 65년도 방문시는 그래도 졸업생이 없던 때라 국가보전에 이바지할 희망이 보인다고 자부하던 분들도 금년에는 힘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 보니 매우 어렵고 자기들의 위치가 애매함을 모교에 호소하여올 때 교육자로써는 피로운 일이라고들 한다.

날로 발전하는 의학의 분야로써 구태어 연약한 교육으로써는 전문적인 간호원 배출이 힘들 것이며 국제간호협회 일원인 대한간호협회 회원자격에 의문을 던져 주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하루 빨리 우리 국민보전에 이바지하는데 참되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간호원 배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남은 간호학교 실태조사가 끝나서 65년도 것과 비교표를 작성하여 참된 교육에 도움을 준다면 그 이상의 보람이 없겠다. 무엇인가 잊은 듯 한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그 교장을 떠났다.

1967년도 신입생 지원자수와 그 합격 비율

학 교 명	지원자수	합격자수	비 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36	40	3.4 :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260	55	4.2 : 1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18	30	3.9 : 1
카톨릭 의과대학 간호학과	175	30	60 : 1
국 립 의 료 원	96	35	2.7 : 1
서울철도병원	196	20	9.8 : 1
우석의대간호학교	270	99	2.8 : 1
서울위생병원간호학교	116	30	3.8 : 1
서울적십자간호학교	270	35	7.7 ; 1
서울간호학교	270	120	2.3 : 1
경희간호학교	438	80	5.5 : 1
공주간호고등기술학교	153	41	3.7 : 1
개정간호학교	186	80	2.3 : 1
전주간호학교	172	40	4.3 : 1
순천간호고등기술학교	195	40	5 : 1
콜롬반간호학교	72	25	2.9 : 1
수피아 "	250	20	12.5 : 1
대구동산기독병원 간호학교	204	40	5 : 1
대구간호학교	293	80	3.7 : 1
부산의대간호학교	223	40	5.5 : 1
마산간호고등기술학교	327	40	8 : 1
춘천간호학교	126	40	3.1 : 1
진주간호학교	256	40	6.6 : 1
메리놀간호학교	70	30	2.3 : 1
김천간호고등기술학교	184	33	5.6 : 1